

英國에 있어서의 情報資料와 데이터에 대한 需要와 供給의 形態 (上)

S.A. Roberts/J.M. Brittain 共著

金 英 貴 譯*

譯者註 : 이 論文은 Stephen A. Roberts and J. Michael Brittain, "Demand and supply patterns for Documents and data in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33, N.1 (1981), pp.50-71을 翻譯한 것이다.

Stephen A. Roberts는 英國 Loughborough 大學校의 圖書館情報研究學科, 圖書館情報管理센터의 研究員이다. J. Michael Brittain은 同學科의 Senior Lecturer이다. 그들은 共同으로 *Inventory in the Social Sciences* (1975)를 編輯했고, 이 雜誌 V.28, N.4 (1976)에 "Information Services in the Social Sciences"를 寄稿했다. J. Michael Brittain은 "Information and its users: a review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ocial sciences" (1970)의 著者이고, 이 雜誌 V.31, N.4 (1979)에 실은 "Information Services and the Structure of knowledge in the Social Sciences"의 著者이다.

序 論

이 論文은 Unesco가 Loughborough 大學校에 委囑한 社會科學 情報의 데이터의 要求와 供給에 관한 一聯의 調査에 基礎를 둔 것이다. 이 調査는 社會科學과 關聯 應用分野인 教育學, 經濟學, 人文·社會地理學, 社會行政, 社會福祉計劃, 地方自治와 政府間機構의 情報管理등 8個 分野의 專門家들이 着手한 것이다. 특히 主要 社會科學 分野中 리스트에 빠진 分野는 政治學, 社會學, 心理學과 社會人類學이다. 빠진 것中 조금 重要도가 낮은 分野는 方法論, 統計學, 人口統計, 經濟史와 社會史 그리고 經營, 健康과 安全, 會計와 企業 研究, 社會醫學 分野이다.

調査者들은 특히 한편으로는 情報의 데이터의 供給과 利用可能性, 다른 한편으로는 情報의 데이터 要求와 利用間의 關係를 考察하고, 그 위에 情報의 不充分한 利用에 대한 理由의 考察과 마지막에는 情報의 情報서비스가 改善될 수 있는 方法의 提示를 要請받았다.

社會科學者가 圖書館 道具와 情報서비스를 거의 利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

* 釜山女大圖書館學科講師

져 있다. 더구나 많은 圖書館과 情報서비스 機關은 많은 情報를 가지고 있지만 거의 利用되지 않고 있다. 어떤 圖書館에서는 書庫의 3/4이 一年에 한번 以下의 利用 頻度밖에 안되며, 많은 專門雜誌를 利用하는 讀者는 매우 적고 雜誌論文은 보통 出版後 2~3年 사이에 거의 引用되지 않는다. 調查者들은 自信들이 이런 問題들을 提出하고, 특히 널리, 廣範圍하게 利用되지 않는 理由들을 考察하도록 要求받았다. 四書館情報서비스 運用의 水準이 理由인가? 혹은 書誌道具의 水準인가? 아니면 社會科學 研究의 特性에 더욱 뿌리가 깊은 知識과 實際가 그 理由들인가?

다루어진 學問과 主題分野

經濟學은 調査에 包含된 唯一한 傳統 社會科學 分野이다. 그것은 理論과 應用分野를 다루며 統計的이고 數學的인 方法과 데이터에 依存한다.

社會科學 分野內에서 教育學의 地位는 많은 論難이 되어 왔었다. 그 主題는 소위 母學問인 哲學, 歷史, 社會學, 心理學 그리고 最近에는 政治學, 經濟學 그리고 企業計劃에 基盤을 둔 見地에서 그 強點을 끌어낸다. 出版된 文獻은 그 分野의 教育和 訓練의 理論과 實際를 다루고 있으며, 實務家들이 利用하고 生産하기 위함을 그 目的으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人文地理學은 人間環境에 關聯되는 人間커뮤니케이션의 研究다. 人文地理學의 代案으로서 社會地理學이란 用語의 主張은 地域社會에 대한 強調를 나타낸다. 人文地理學과 社會地理學이 社會學으로서 考慮되기 시작한 것은 比較的 最近이나 社會學(都市와 地方研究에서)과 經濟學(産業地域에서)과 같은 社會科學과의 方法, 內容과 相互關聯性이라는 理由로 그 地位가 正當化되었다.

地理學의 知識과 技術의 適用은 廣範圍하나 人文地理學과 社會地理學은 아무리 그 應用範圍가 넓다 하더라도 여전히 教育的이고 形式的인 체로 남아 있다. 지난 20年間 새로운 量的인 地理學의 增加는 情報管理和 情報利用에 매우 重要했다.

나머지 4個 主題分野는 서로 매우 密接하게 連結되어 있고, 英國에서는 確實히 實際로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行政學의 한 方面인 地方自治는 그 影響이 널리 미치는 重要한 實務家 分野이다. 그것은 社會科學이 偏狹한 學問的인 感覺속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地方自治의 分野內에 2個의 重要한 應用分野가 있다. 하나는 都市感覺의 시골과 地域計劃이며 다른 하나는 社會福祉이다. 이 세 領域이 합쳐져서 學者와 研究가, 實務家와 實務家들의 技術의 練習보다 훨씬 덜 重要한 應用社會科學을 例證한다. 英國에서는 가끔 같은 統治와 組織의 背景속에서 그 세 領域은 꽃을 피운다.

社會政策과 行政은 職業이라기 보다는 學問이다. 그러나 앞의 세 領域 모두와 부딪친다. 社會行政은 모든 面에서 볼 때 社會政策의 研究다. 따라서 實行되기 보다는 研究되고 探究되었다. 社會行政의 實務家は 社會事業家, 社會奉仕行政家, 教育·住宅行政家 그리고 地方自治 行政官들이다.

이 調査에서 다루어 진 마지막 分野인 政府間機構(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GO)의 情報管理는 이 調査에서의 그 位置와 마찬가지로 여러 面에서 매우 獨特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出版되었으므로(Hopkins, 1980), 여기서는 現在の 參考文獻만 다루어 질 것이다. IGO 情報管理는 國際機構와 國際關係 研究의 基礎다.

未刊行情報는 刊行情報와 꼭 같이 重要な 領域이며, 書誌統整 問題가 만만찮은 分野이다. 대부분의 情報需要와 供給에 대한 評價는 情報源과 情報流通 研究에 철저히 依存해야 한다는 것을 Hopkins는 보여 준다. 그들의 關係는 그들의 一部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가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Hopkins 調査는 情報의 特殊한 形態에 관한 חות점이 調査와 우리들의 理解를 도운다 할지라도 需要, 供給과 利用關係를 普遍化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나타내고 있다.

利用者와 要求形態

利用者の 概念은 情報를 利用하는 사람이다. 積極的인 利用者는 特別한 要求를 하나, 많은 個人들은 潜在的인 利用者와 非利用者로 생각할 必要가 있다. 이 論文에 있어서 첫째, 社會科學者 共同體와 둘째, 利用者, 潜在的인 利用者 그리고 非利用者의 範圍를 考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寄稿家들은 分明하고 明瞭하게 利用者 範圍를 規定하고 밝힌다는 것이 약간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經濟學에서는 學究的인 利用者와 實務家 사이에 뚜렷한 線을 그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大學校의 學者陣과 功藝家 그리고 研究單位가 分離된 研究機關의 研究者들이 아마 가장 比重있는 利用者의 位置에 있다 하겠다.

지난 10~15年 사이에 會社, 銀行, 政府部署와 勞動組合에 專屬 經濟顧問의 數는 增加해 왔었다. 情報需要에 따라 單行本에서 一次 定期刊行物에로의 꾸준한 移動이 있었고, 最近에는 出版時間의 遲延으로 인해서 研究論文으로 移動하고 있었다. 大學과 産業에 從事하는 利用者들의 統計데이터에 대한 需要가 현저히 增加했으며 英國의 書誌統整 특히 最新情報周知는 지난 [10年間 상당히 向上되었다. 다른 한편, 批評이나 데이터에 대한 一般 大衆의 關心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 많은 政

府補助가 있어야 利用할 수 있는 훌륭한 統計蒐集의 數를 增加하고, 資格있고 經驗 있는 職員이 利用者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고 調査者는 느꼈다.

英國의 教育情報에 대한 潛在的 市場은 크고 多様하다. 여기서는 分明히 가장 큰 市場이 討議되었다. 한 研究는 百萬人中 3/4을 넘는 사람이 教育과 訓練서비스 職業에 從事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이 巨大한 集團안에서 要求하는 種類의 差異點들은, 얼마간 教育과 訓練서비스 機能의 多樣性에 있다.

主題關係는 강한 要求源의 差異點인데 왜냐하면 많은 教師들의 主題나 學問分野는 그들이 雇傭된 機關의 種類보다 더 강한 參考點이 되기 때문이다. 需要方向의 差異點에도 不拘하고 單一로 가장 큰 部分은 需要의 強度에 있다. 가장 需要水準이 높은 것은 研究者들이고 雜誌論文이 主要 커뮤니케이션 手段이다. 매우 豊富한 情報서비스는 教育者들에게 有用하다. 그러나 研究者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情報서비스의 價値는 의문스럽다.

다른 集團의 行政家들은 거의 無視되었다. 最近 研究結果에 의하면 情報가 個個 教師나 特定學校의 經驗에 根據를 둔다면 더 有用할 것이라고 한다. 敎職經驗의 年限과 情報利用 사이에는 역시 重要한 關係가 있다. 經驗이 많은 教師는 研究로 더 많은 影響을 받고 情報에 대한 質問을 하고, 學校가 當面한 限界를 넘어선 情報를 찾고, 그리고 定期刊行物과 圖書館을 利用할 것이다.

社會政策과 行政에는 現在의 그리고 潛在的인 3個의 主要 利用者 集團이 있다. 즉, 學生, 社會行政의 教師, 그리고 研究者들이다. 實際的인 需要는 潛在的인 需要보다 훨씬 낮으리라는 것은 틀림없다. 특히 敎授(Teaching)에 龍大한 一次資料 情報源이 利用되지 않으므로 해서 利用者 教育과 새로운 力說은 利用과 需要의 形態를 바꿔 놓을 수 있다.

새로운 利用者 集團을 確認하기는 힘들지만 지난 10年間 많은 數가 나타났다. 例를 들면, 研究壓力團體와 福祉權機關들은 處理된 統計와 便覽情報를 必要로 한다.

어떤 種類의 制限된 情報에 대한 需要가 공공연히 增加하게 되면, 이런 需要가 널리 普及되는 것을 機待할 수 있다. 地方當局의 社會奉仕科에 있는 研究班은 比較的 다른 새로운 集團이다. 社會行政의 環境은 매우 빨리 變化하는 것의 典型이다. 그러나 敎授와 研究에서는 그 變化가 느린, 어떤 一慣된 標準需要가 있다.

社會福祉에서 確認된 다섯 集團의 利用者와 需要가 確認되었다. 實務家, 行政家와 顧問, 學生, 教師 그리고 研究者이다. 特定集團에 包含될 수 있는 것은 主要行政部署의 公務員, 地方當局 顧問官, 行政長官, 經營委員會의 非專門會員, 社會福祉

機關에 所屬된 志願者 그리고 地域社會團體의 會員들이다.

社會福祉와 保護觀察의 潛在的인 利用者數는 十萬을 넘는다. 많은 社會서비스의 法的 根據로 인하여 法律과 法令에 관한 情報需要가 增加했다. 職業的인 社會事業家들이 正確히 몰랐거나 잘못 利用한 慈善團體, 壓力團體 그리고 다른 機構들이 버섯처럼 번졌다. 이러한 開發들은 地域社會의 政治와 地域社會 情報의 一般的인 成長과 나란히 한다.

이러한 需要傾向에도 不拘하고 利用할 수 있는 最新性的의 缺乏이 있으며 現存施設의 利用은 낮다. 어떤 情報서비스 機關은 그러한 狀況에 對處하기 위하여 慣習的인 利用者 敎育을 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 때 適當한 機關에 매우 分명한 需要를 制定하는 것이다.

需要의 時間的 要因은 상당히 多樣하다. 모든 情報은 즉시 要求되는 것이 아니므로 情報서비스에 대한 信賴가 確立되어야 한다. 그래서 必要的인 것은 適當한 遲滯뒤에 提供된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더 급하게 必要的인 것일수록 더욱 特定한 情報가 要求된다. 社會事業家들은 매일 매일의 問題 解決의 活動에 絶對 必要的인 部分으로서 자기 보다는 때때로 最新性 維持를 위하여 公式 情報서비스 機關을 利用할 것이다.

實務家/研究者/敎師 部分의 利用者 計劃은 妥當性을 가지고 있다. 이런 團體들의 重複되는 範圍는 적다. 計劃에 있어 大衆參與에 대한 法的 要求로 인하여 一般大衆은 지금 利用하고 있는 것보다 計劃情報의 커다란 顧客이다. 實務家は 約 二千名에 달하는 가장 큰 集團이다.

데이터는 計劃者를 위한 情報源으로서 情報資料보다 더 重要하며, 그 結果로 傳統的인 利用者 敎育에 대한 必要的인 상당히 가벼워졌다.

社會事業의 職業情報은 매우 重要하며 時間要因 効果는 비슷하다.

地方自治에서 利用者 需要는 두개의 뚜렷한 水準에서 이야기 될 수 있다. 즉, 數的으로 비슷한 公務員과 選出된 會員(非專門大衆)은 情報서비스 供給을 위한 計劃에 많은 關心을 가져 왔었다. 地方自治(行政研究者로서의 學究的인 意味는 除外하고)는 어떤 眞正한 意味에서는 한 主題가 아니나, 많은 다른 情報需要環境에는 表現되어 있다. 社會福祉 職員들과 都市·地方計劃者는 커다란 매우 典型的인 두 集團이다. 統計데이터 內部報告書와 文書는 매우 重要的인 資料이며, 要求는 가끔 現在 話題가 된 問題에 關聯되어 있다.

지난 10年 以上 地方自治에 관한 論文의 暴發이 있었으나, 比例해서 圖書館 情報서비스에 대한 要求가 增加했다는 證據는 없다. 그 成長에도 不拘하고 圖書館과 情

報專門家들의 수많은 情報資料를 無視하고 못쓰는 쓰레기로 만드는 式으로 認定하지 않더라도 利用者들은 克服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情報管理 活動이 旺盛하다는 程度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問題는 利用者들이 現存 시스템을 어떻게 利用하는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現存 시스템이 그들의 要求를 一致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고 結論 지을 수 있다.

情報處理에 새로운 技術과 技法의 注入은 地方自治 情報機關들 사이의 많은 內部 協力을 要求한다. 情報資料에 대한 需要의 流行은 어떤 役割을 할 수 있다. 興味の 急速한 移動은 需要의 한 要因이 된다. 즉, 地方自治와 情報機關은 景氣後退와 興味が 急速히 變할 때 中央政府로부터 壓力을 받지만 많은 決定은 利用 가능한 充分한 情報가 政策決定者에게 없을 때 이루어 진다. 政治的 過程에서 다른 種類的 情報와 知識의 位置는 아직 充分히 理解되지 않고 있다.

學者 對 實務家

社會科學에서는 學者보다 實務家가 훨씬 많지만 文獻, 情報서비스, 圖書館과 情報需要에 대한 研究는 壓到的으로 學者들을 위해서였다. 敎師(高等教育은 別問題로 하고), 行政家. 그리고 다른 實務家를 위한 情報 供給은 거의 研究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情報需要도 형편없었고 가끔 誤解되었다.

社會科學에서 특히 情報資料는 學者들의 生命이다. (왜냐하면, 보통 技術科學의 경우와 같이 모든 研究가 實驗, 데이터蒐集과 操作을 取扱하지 않기 때문이다.) 實務家は 가끔 情報資料를 提供받으나 그것으로 滿足한지 않으면 안된다(때때로 그들을 無視한다) 그러나 實務家は 現在 問題와 業務에 關聯된 情報와 데이터를 훨씬 좋아한다.

實務家를 위한 情報서비스는 10년도 훨씬 前에 開發한 學者와 研究者를 위한 서비스(圖書館과 情報資料가 主된)를 模倣했다. 社會科學에서 많은 實務家は 應用科學者와 같이 情報探索과 情報利用에 관한 反應은 問題 解決을 위한 情報와 데이터에 대한 要求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業務解決에 直接 關聯이 있고 適用할 수 있는 情報를 要求한다. 말하자면 보통 一般的인 情報가 아니고 그 以上도 以下도 아닌 바로 그 問題를 解決하기에 充分한 情報를 要求한다. 그러나 情報利用에 관하여서 社會科學者는 應用科學者와 같은 反應을 나타내지만, 質問, 再評價 그리고 說得으로써 問題를 解決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社會科學 實際의 性質은 다르다는 力說이 아직 있다.

事業과 產業에 있어서 實務家, 社會行政家, 社會福祉 事業家 그리고 應用社會科學者는 社會科學 研究와 社會科學 文獻의 利用과 價値에 대한 機待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社會科學 研究와 情報에 機待하는 것은

- a) 問題를 解決한다.
- b) 비슷한 問題에 대한 새로운 洞察力을 提示한다.
- c) 새로운 方法과 實行을 提示한다.
- d) 理論과 技術을 提供한다.
- e) 向上되고 있음이 보이는 知識의 本體를 形成하기 위하여 蓄積한다.

그러나 많은 社會科學 著作은 科學論文이라기 보다는 文學批評에 더 가깝다. 理論, 技法 그리고 方法의 要素가 믿을만 하며, 하나씩, 꾸준한 蓄積 대신에 社會科學 文獻은 斷片的이다. 利用할 수 있는 理論들은 檢證할 수 없거나 잊혀진 것으로 새로운 理論世代에 계속 混亂을 일으킨다. 理論의 基礎에 대한 계속적인 再評價와 疑問이 있고, 특히 오늘날엔 初期의 接近方法이 現在 問題를 理解하는데 새로운 빛을 던져 줄지 모르는 希望속에서 過去의 理論과 보기의 復活이 있다.

이 調査의 功獻者들은 學者와 實務家사이의 의심스러웠던 差異點을 確證한다. 一般的으로 學者들은 比較的 圖書館情報서비스를 잘 받으나 實務家は 그렇지 못했다고 結論지을 수 있다. 慣習의인 圖書館 서비스로 情報資料 供給을 改善시킨다는 것은 實務家の 事情을 크게 向上시킬 수 없다는 강한 暗示가 있다.

經濟學, 社會·人文地理學 그리고 더욱 最近 分野인 社會政策과 같은 既存學問에서 學者와 研究者들의 生計는 情報資料다. 즉, 多數의 情報資料는 觀念, 概念, 데이터와 興味있는 情報를 담고 있기 때문에 學者들은 그들을 읽을 準備가 되어 있다. 나아가 學者들은 圖書館 資料의 傳達서비스를 매우 잘 받고 있다.

經濟學, 地理學 그리고 社會政策에 있어서 學者와 研究者를 위한 現在 및 潛在的인 情報需要를 만족시키기 위한 圖書館 情報서비스는 여전히 調律이 훌륭한 水準에 있다. 情報시스템의 훌륭한 調律(fine tuning)에 包含될 수 있는 것은 向上된 物理的 接近, 特定 藏書에 대한 知識, 그리고 그들이 利用할 수 있는 方法, 利用者가 情報檢索을 하는데 必要한 努力量의 減少 그리고 分類와 情報資料 組織의 改善이다 사소한 向上도 檢索된 情報의 妥當性을 增加시킬 수 있다.

學者들은 상당히 修正된 社會科學 文獻을 要求하는 뚜렷한 기미는 없다. 例를 들면, 새로운 形態의 文獻이나 研究 그리고 現在 取扱되고 있지 않는 論題나 問題에 관한 著作이다. 文獻의 間隔을 確認하는 것이 學者들의 目標의 하나다. 根本的인

研究水準과 教科書水準 둘다에서의 隔差를 그들의 研究와 著作으로 메꾼다. 學者와 研究者들의 不滿이 社會科學 文獻에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情報專門家들이 그 狀態를 改善시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學者들이 圖書館, 情報傳達서비스 그리고 情報檢索서비스에 不滿이 있다면 情報專門家들은 그것을 크게 向上시킬 수 있다. 따라서 一般的인 需要와 供給의 狀態가 매우 잘 一致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唯一한 論爭 領域은 妥當性, 濾過 選擇 그리고 探索의 委託에 關係된다. 많은 學者들은 委託할 準備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一般的으로 要求받았을 때) 그러나 委託(Evans and Line, 1973)의 要素를 包含한 情報서비스를 提供받았을 때는 委託을 받아 들일 準備가 잘 되어 있었다. 자주 學者와 研究者들은 그러한 資料(특히 그들의 專門分野가 아닌)를 가지기를 좋아 한다. 그런데도 力說的으로, 學者는 批評論文 쓰기를 꺼린다.

社會科學의 學者와 研究者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情報시스템은 複雜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滿足할 만하게 그 機能을 다한다고 結論지을 수 있다. 最近에 (Brittain, 1979) 自然科學 커뮤니케이션의 模型에 基盤을 둔 社會科學 情報시스템의 知識에 관한 疑問이 提起되어 왔었다. 그것은 知識을 組織하기 위한 情報追跡方法 사이에 根本的인 差異點이 있기 때문이다. 大部分 그런 不安은 既存 社會科學 分野를 다루는 論文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應用社會科學의 情報資料 傳達서비스를 包含하는 圖書館 情報서비스의 水準과 情報資料生産의 水準은 매우 다르다. 지난 10年間 많은 向上이 있었지만 應用社會科學者는 여전히 慣習的인 圖書館 情報서비스를 형편없이 받고 있다. 커다란 關心은 實務家들이 要求한 水準까지 많은 서비스가 傳達되고 있지 않은 것이고, 더 큰 關心은 대다수의 情報資料, 情報, 데이터가 要求되지 않았고 實務家들에게 所用없거나 價値가 없다는 可能性에 있다. 이런 不安을 뒷받침하는 것은 應用科學者를 위한 利用可能한 '商品'으로서의 情報 價値에 대한 疑問이다.

地方自治와 關聯하여 情報은 本來 바람직하다는, 한때 到處에서 主張된 見解가 지금은 疑問視될 수 있다. 實務에 있어서는 많은 業務가 意思決定을 隨伴하므로 情報서비스機關은, 利用者는 限界를 가지고 있고 그 限界를 넘어서 더 많은 情報를 吸收할 수 없다는 것을 認識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는 어떤 企圖은 아마 그의 過重한 負擔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水準의 選擇과 濾過가 要求되며, 이것은 情報서비스機關이 實務家들의 業務環境의 절대 必要한 部分일 때 滿足스럽게 實行될 수 있다. 情報專門家들이 業務팀의 一部가 되어야 한다는 要求는 強調되었다. INFROSS

(Investigation into Information requirements of the Social Sciences) 研究(University of Bath, 1971)에서 應用社會科學者들은 情報서비스에 있어서의 높은 水準의 選擇과 濾過를 學者와 研究者들 보다 훨씬 더 기꺼이 받아들인 다는 것이 가끔 알려 졌다.

供給 特徵

그 調査의 主要 目的의 하나는 需要와 提供과의 關係의 概算을 얻는 것이었다. 分명한 假定은 供給이 需要보다 크다는 것이다. 몇몇 調査는 生産된 情報資料의 一年量을 推定할 수 있다. 그러나 情報가 經營上 妥當하게 될 때에는 더욱 信重한 計算이 要求된다. 主題分野를 分類하면, 供給 狀態에 대한 觀察 結果는 다음과 같다.

經濟學 資料의 主要 藏書는 國立圖書館과 大學圖書館에 있다. 그리고 약간의 規模와 資格을 갖춘 몇몇 專門圖書館이 있을 뿐이다. 英國圖書館의 政治學과 經濟學 分野는 最高로 重要하다. 經濟學은 여전히 매우 理論的인 學問이며, 定期刊物 記事, 會議記錄, 未刊行 研究論文이 主要 文獻形態다. 새로운 經濟學 雜誌가 1960年代에 많이 생겨 났고, 많은 부분이 1970年代에 그대로 남았다.

未刊行 文獻과 半刊行 文獻이 重要한 文獻 成長要素인 教育學은 다른 分野이다. 調査者는 文獻의 規模와 種類에도 不拘하고 一般的인 利用可能性은 매우 좋다고 느꼈다. 教育學圖書館 間의 相互貸出에 대한 地域協力 計劃은 效果的인 것으로 證明되었다. 參照와 質問을 위해 大衆에게 公開되고 있는 教育科學局에는 中央政府 藏書를 포함한 專門家圖書館이 있다. 마이크로 필름 雜誌인 CORE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利用할 수 없는 會議記錄과 研究報告書의 概要를 提供한다.

地理學의 利用可能性은 學會 加入에 依存하는 傾向이 있으며, 研究資料와 專門資料를 公共圖書館에 依存해야 하는 不利한 立場에 있다. 外國文獻의 利用可能은 滿足할 만 하나 研究分野로서 比較教育의 重要性에도 不拘하고 英語로 翻譯된 資料는 거의 없다. 人文·社會地理學에서의 提供狀態는 比較的 좋다. 그 主題分野의 學會 加入이 利用可能性의 決定要因인 것은 그 分野가 理論的이고 教育的 偏見이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社會科學者와 共通으로, 地理學者는 英國國立圖書館 貸出部가 供給하는 一次(그리고 單行本) 文獻에 대한 훌륭한 接近方法을 즐긴다. 英國 地理學者는 다행스럽게도 英國에서 發行되는 主要 國際서비스인 Geoabstracts로 二次文獻을 다룰 수 있는 立場에 있다. 經濟學과 같이 地理學은 成熟한 學問이다. 그리고 한 두 圖書館은 뛰어난 藏書(예를 들면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와 Oxford and Camb-

ridg Universities)를 가지고 있다. 地圖製作資料에 대한 좋은 接近方法이 있으나 統計데이터(예를 들면, 供給遲延, 時事性 不足, 集成問題)에 대한 接近問題는 다른 社會科學 특히 經濟學과 함께 하고 있다.

人文·社會地理學은 廣範圍한 主題다. 그리고 地理學者가 資料를 蒐集, 備置하는 숨씨가 있어야 한다 할지라도 利用可能한 資源은 무진장하다. 定期刊行物 文獻은 重要하다. 그러나 單行本은 經濟學에 있어서 보다 더 比重있게 使用되었다. 實務家(아마 地方自治에서)로서의 應用地理學者는 接近方法에 있어서 幸運이 적으나 그렇게 廣範圍하게 걸칠 必要가 없을지 모른다.

社會政策과 社會行政도 역시 範圍가 넓으며 單行本과 官出版物은 雜誌文獻보다 重要하다. 教授(Teaching)에 一次情報源 使用을 강하게 主張한다. 팜프렛과 報告書의 蒐集·開發은 圖書館職員이 充分한 主題知識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가장 效果的인 것이다. 報告書 文獻은 圖書館 相互貸借에 관한 問題임이 證明되었으며, 이것은 다른 社會學과 함께 하고 있다.

모든 調査者는 口頭로 혹은 書信을 통해서만 傳達될 수 있는 限定된 普及의 一時的 性質을 가진 情報資料의 重要性을 指適한다. 興味있는 發展은 非英國資料 특히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서 만들어 지는 資料에 대한 需要가 擴大되고 있다는 점이다. 供給은 어렵고 現存 保管設備은 만족스럽지 못하여 效果的인 供給을 위한 最終 解決이 될 수 없다는 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인다.

利用者와 供給者에 대한 상세한 知識의 부족은 需要와 供給의 效果的인 一致에 障礙物이 되고 있다. 社會政策은 여러 면에서 歷史的인 學問이다. 그러나 資料의 利用可能性은, 방금 言及한 範疇는 別問題로 하고, 비교적 좋다.

社會福祉에 관해서 調査者들은 行動研究의 一部로서 地方當局에 提供된 서비스의 記述에 努力을 集中했다. 問題 當局은 情報과 情報資料의 供給問題를 處理하는 많은 當局보다 더 잘 準備된 것으로 判明되었다. 그 理由는 아마 實驗計劃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研究狀況에서의 藏書는 보통 작으나 높은 水準에서의 時事性을 가지려는 傾向이 있다.

社會事業家は 比較的 出版文獻을 대할 時間이 거의 없거나, 사실 그것을 利用할 意向이 없다. 그 目的은 작으나 核心을 供給해야 하며 高度의 現行의, 그리고 適切한 藏書가 包含되어야 한다. 內部文獻 管理와 事例資料는 매우 重要하다. 社會福祉는 情報과 情報資料 사이의 典型的인 人事紛爭의 例를 提示한다.

利用者에게 가해지는 職業的 壓迫때문에 情報資料와 公式 커뮤니케이션 過程은 事

實, 데이터, 그리고 意見—모든 다른 形態의 情報—의 流通에 깊은 抵抗感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지금 情報處理를 克服하는데 自動化가 重要하게 適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計劃에 있어 法律, 統計學과 報告書는 뛰어나게 人氣가 있고, 報告書 文獻이 가장 重要한 것으로 되고 있다. 社會福祉 實務家は 보통 研究資料보다 文書·業務資料에 接近한다. 수 많은 國家資料 혹은 더 크고 廣範圍한 資料가 있으며, 計劃에서 現行資料는 오로지 거의 英國에 關聯된다. 重要資料에 대한 言語 障壁은 매우 深刻한 것으로 나타나며, 調査者는 潛在的인 學問과 研究에 대한 興味가 있음직한 出處로서 프랑스와 폴란드를 引用했다.

地方自治의 모든 分野에서는 內部 文獻管理, 報告書, 그리고 法令資料가 가장 重要하다. 當局의 內部, 外部 모두에서 內部文書의 有効性은 分類와 檢索에 대한 標準시스템 開發의 失敗에 影響을 받는다. 다시 EEC에서 만들어진 情報資料는 매우 重要한 것으로 推測되고 있으나. 收書와 書誌統整 問題는 深刻하다. 한部下 部集團을 다룰 中央集中된 情報構成單位는 드물다. 그리고 現存 혹은 潛在的인 서비스에 配置할 專門職員이 不足하다. 地方自治 機關은 英國國立圖書館 貸出部를 거의 利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分野의 것이 體系的으로 蒐集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機密과 現行性은 情報와 情報資料의 廣範圍한 配布를 緩和시킨다. 書誌統整을 改善하려는 약간의 努力이 있었으며 Birmingham에 있는 Weslink와 Yorkshire에 있는 YADLOGIS 같은 協力事業이 있었다. 社會科學에서의 IGO 情報管理는 여러 面에서 獨特하다. 一次 目標은 可能한 폭넓은 利用者와 連絡이 되는 것이므로, IGO는 傳統的으로 그들이 파는 것보다 더 많은 出版物을 나누어 주고 있다. 團體 顧客들은 IGO의 賣買 努力은 덜어 줄 수 있으나 個人 利用者는 IGO 시스템이 너무 크고 複雜해서 對處하기 힘들며, 圖書館은 支援을 하는데 失敗하고 있음을 發見할 것이다. 英國의 保管設備(大部分 大學圖書館에서)는 豊富하다 할지라도 地域後援의 失敗때문에 滿足스럽지 못하다. IGO 情報 任務는 供給機關과 마찬가지로 重要하다.

情報過重 問題

需要와 供給의 差異나 不調和를 說明하는 한가지 方法은 情報過重과 그 結果에 대한 것이다. 이 概念은 지난 20年間 상당한 注意를 끌어 왔었다. 根本的으로 利用者의 能力이 限定되어 있다면, 提供者는 훌륭한 調律과 濫過에 그들 努力을 集中해

야 한다.

學자와 研究者 그리고 應用社會科學者는 소위 情報暴發과 過重의 結果로 惹起되는 問題와 飽和狀態를 不評했다. 1970年代 初半까지 거의 百年동안 社會科學의 一次文獻은 指數比率로 成長했다. 그리고 1920年과 1970年 사이에 二次文獻은 똑같은 傾向을 따랐다(Line and Roberts, 1976; Universities of Bath, 1975). 어떤 社會科學者는 이러한 增加에 발맞춰서 읽고 調査했다. 많은 社會科學者는 더욱 嚴密한 用語로 他們 分野를 再規定 했는데 이것은 專攻을 促進시켰다.

그 報告書는, 利用者가 增加하는 情報資料에서 自信을 保護할 수 있는 未來를 위하여 소위 情報暴發은 끝난다. 社會科學 分野에 놀랄만한 數의 새로운 雜誌가 나오고 있지만 그 이상의 指數成長은 없다. 종이 값의 引上, 1970年代의 經濟氣流, 그리고 出版費의 엄청난 增加는 利益 減少를 가져 왔다. 사실, 暴發은 결코 없었고, 단지 指數成長을 잘 規制했다. 暴發의 인 成長이 있었다고 하는 생각의 原因은 얼마간 Price(1956)의 論文에 대한 誤解와 그에 대한 利用者의 敏感한 反應때문이었다.

利用者가 要求하는 情報量은 그의 專攻이나 業務에 대한 解釋에 상당히 左右되고 있으며, 利用者 認識은 圖書館서비스나 同僚에 달려 있다. 利用者들을 더 많이 알게 하려는 企圖는 항상 成功하지 못했다. 특히 利用者들이 전혀 判別할 수 없는 方式으로 알게 했을 때는 研究者는 檢索하고 읽는데 너무 많은 時間을 消費하므로 도 대체 研究를 始作할 수가 없었다. 實務家는 그의 顧客과 業務를 똑같이 無視할 수 있다.

非難의 一部는, 利用者는 더 많은 情報를 알아야 하고 더 많이 읽어야 한다는 教訓을 주려했던 圖書館과 情報機關에 주어질 수 있다. 그 教訓의 利益을 證明하려는 어떤 企圖는 없었다.

대체로 大部分의 實務家, 많은 研究者와 學者는 情報通이 되기 위한 勸告를 받아들였으나 자주 그들은 그 緊張을 없앨 位置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自信의 無識함에 罪意識을 느끼기 시작했다.

評價 雰圍氣는 情報通이 되는 教訓에 더 好意的이므로 利用者는 活用例 內에서 活動했다. 따라서 研究와 活動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情報를 要求한다. 社會的 雰圍氣, 事實의 機械的인 暗記의 教育的 強調, 一般의 인 知識의 大衆媒體 狀況 그리고 外觀上 到處에 있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퀴즈게임은 더욱 더 많은 知識이 바랍적하다는 것을 強調했다. 그러나 무슨 目的을 위한 知識인가?

情報源과 情報組織의 知識

傳統的인 利用者 教育 프로그램은 書誌道具에 대한 知識과 發峯된 知識의 形式的인 組織을 比重있게 強調해왔다. 어떤 道具에 익숙해지는 것은 利用者 教育의 重要な 面이다. 그것은 자주 情報과 컴퓨터이전 過程이 어떻게 運用되고 있는가의 實際的인 理解의 代用物이 될 수 있다. 만약 利用자가 圖書館과 情報에 대한 教育을 받았다면, 단지 書誌道具와 資料의 位置에 대한 機械的인 知識에 依存할 것이 아니라 複雜한 問題와 論爭點을 생각하도록 訓練받아야 한다.

두 調査者(地理學과 IGO文獻에서)만이 특별히 情報源과 情報組織의 知識에 대한 評價를 必要로 한 要約 部分을 考慮했다. 한편 그러한 知識이 根據가 될 수 있는, 全體的으로 適切한 指針의 不足을 指適할 수 있으며 이것은 正確할 수 없다. 그러나 出版된 指針은 그 研究 領域外에는 거의 利用率이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實務家は 매우 알기 어렵다. 다른 한편, 司書와 書誌學者들의 想像 以上으로 그런 道具의 必要性의 不足을 指適할 수 있다. 만약 그 論評이 나쁜 種類의 書誌典據 道具에 대한 批評이 目的이었다면, 어떤 眞實이 있다.

社會福祉와 保護觀察局에 대한 情報서비스의 實驗研究는 實務家の 要求를 滿足시키는 데 매우 効果的인 것은 再包裝과 信중한 濾過과 必要하다는 것을 示唆한다. 특히 많은 資料가 情報資料 傳達서비스를 통해 利用될 수 없을 때 그러한 處理와 組織은 慣習的인 情報源 道具와 指針의 必要性을 減少시킬 수 있다. 많은 書誌道具는 潛在的인 利用者의 實質的인 要求에는 확실히 不適當하다. 利用者들은 有用한 書誌道具의 存在와 性質에 관한 情報를 잘 모르고 있다. 또 많은 利用者は 圖書館利用과 그 內容에 관해서 매우 서툴러 熟達되지 못했다. 여러 動機로 利用者は 書誌手段과 圖書館에 대한 知識을 向上하려고 努力하지 않는다.

人文·社會地理學의 學問的 偏見(즉, 文獻, 讀書, 著述에 대한 全念)은 文獻資料와 道具에 대한 能熟함은 專門的인 技術에 該當된다는 것을 確實하게 해준다. 文獻資源이 制度上으로, 그리고 空間的으로 不公平하게 配布되었다는 것은 既定事實이며 圖書館과 知識源을 利用하는데 있어 地理學者는 다른 集團보다 나쁘지 않고 아마 약간 더 좋은 것 같다. 어떤 形態의 資料를 追跡하고 處理하는데도 굉장한 努力을 要求한다. 그것은 타고난 書誌技術이라기 보다는 忍耐가 決定的인 要因이 된다.

특히 學問世界에 있어서 많은 地理學者는 外國文獻을 要求하고 利用한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리고 스페인 資料도 重要하다. 그러나 그들은 自信들의 資

料到 크게 依存할 뿐이다. 다른 分野는 말할 것도 없다. INFROSS 研究는 大部分의 社會科學者가 外國文獻과 모든 種類의 書誌道具를 거의 利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들의 知識狀態는 세세한 點에 있어서는 臨時的이고 純理論的이다 그러나 最大限이라기 보다는 最少限 形態의 使用과 開發로 利用이 特徵지워 진다. 情報源과 情報組織의 知識에 대해 言及할 때 情報通利用者는 例外다.

學問과 研究活動에 있어서 圖書館과 書誌道具에 대한 知識과 利用은 職業道具의 一部라고 생각되고 있다. 많은 研究者들은 圖書館과 書誌道具를 利用하는데 專門家가 아닐지라도 몇년간의 經驗뒤, 大部分 그들이 必要한 資料를 얻는 適當한 技術을 習得한다. 學者와 研究者들에게 情報流通을 改善하기 위하여 仲介者(한편으론 情報資料의 畜積과 다른 한편으론 利用者 사이를 作用하는 情報專門家)가 圖書館과 情報센터에 採用되었다. 그러나 보통 最終 結末은 書誌에 맞춘다. 그런 意味에서 情報專門家は 特定問題와 質問에 대한 데이터나 解答은 보다 적고, 情報資料나 書誌參考文獻의 리스트를 利用者에게 提供한다.

學問社會에 있어서 學者의 情報活動, 情報專門家와 司書의 差異點은 뚜렷하지 않지만 情報探索과 蒐集에 관한 分業은 機關, 研究形態, 圖書館情報서비스의 方針 決定, 講座의 目的, 個人 利用者에 따라 多様하다. 社會科學 實務家の 狀況은 매우 다르다. 圖書館 接近方法이 가끔 問題된다. 實務家は 보통 情報檢索에 서툴다. 圖書, 報告書 그리고 雜誌는 보통 實務家에게는 實際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利用動機는 不足하다. 적어도 最少限 情報活動에 關한한 情報仲介者와 實務家の 役割은 바꿀 수 없다.

分業이 없다면 實務家は 情報와 情報資料의 供給에 고생할 것이다. 誘導된 一般的인 結論은 첫째, 情報와 情報資料에 대한 많은 利用者와 潛在的인 利用者は 物理的인 接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번째, 物理的인 接近이 便利하다 해도 情報資料의 獲得과 利用이 確實치 않다. 왜냐하면 많은 利用者は 얼마간은 書誌的인 아니고 圖書館 指向的이고, 얼마간은 職業 情報專門家は 情報資料를 얻는 機構에 익숙할 수 없기 때문이다. <次號 繼續>